

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10. 19.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. 9. 8. 은복실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- 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5.

(제262회 임시회 개최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이유

- 가. 제안설명: 은복실 의원
- 나. 제안이유
성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학대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5조)

라.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(안 제5조)

마. 사업비의 지원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

나. 협조부서: 어르신장애인복지과

다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1. 9. 30. ~ 10. 5.) 결과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조례안은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철저한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사회적 윤리교육 부재로 점차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떨어진데다 심하게는 학대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 사회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최근 평택시에서 고등학생이 담배심부름 관련으로 할머니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바 있는데,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공경이나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, 나이 많고 경제적, 신체적으로 힘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방증임.

○ 보건복지부의 “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”에 따르면 2020년 한 해

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전체신고 건수는 16,973건으로 전년 대비 5.6% 증가(16,071건 → 16,973건)함.

- 일반사례¹⁾는 10,714건(63.1%)으로 전년 대비 1.1% 감소
(10,828건 → 10,714건)

- 학대사례²⁾는 6,259건(36.9%)으로 전년 대비 19.4% 증가
(5,243건 → 6,259건)

- 학대사례 6,259건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1,192건(19.0%), 서울특별시 676건³⁾(10.8%), 경상북도 509건(8.1%)의 순으로 나타남.

- 노인학대 사례 6,259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939건(15.0%)이며 비신고 의무자는 5,320건(85.0%)임

- 신고접수 경로 유형을 살펴보면, 112이관을 통한 접수가 3,197건(51.1%)으로 약 절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, 그 외 세부 유형으로 자체접수 2,503건(40.0%), 복지센터 217건(3.5%), 건강보험공단 91건(1.5%) 등이 있음

- 노인학대의 유형은 정서적 학대 4,188건(42.7%), 신체적 학대 3,917건(40.0%), 방임 760건(7.8%), 경제적 학대 431건(4.4%), 성적 학대 231건(2.4%), 자기방임 223건(2.3%), 유기

1) 일반사례란, 신고 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함

2) 학대사례란,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(응급, 비응급, 잠재적 사례)로 판정된 사례를 의미함.

3) 성동구는 20건 발생하였는데, 은평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가 4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순위로는 18위에 해당됨.

53건(0.5%) 순으로 나타남

-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,505건(88.0%)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, 그 외 세부 유형으로는 생활시설 521건(8.3%), 이용시설 92건(1.5%), 기타 65건(1.0%), 공공장소 39건(0.6%), 병원 37건(0.6%) 순임

학대피해노인 교육정도

(단위: 명, %)

무학	초졸	중졸	고졸	전문대졸이상	계
1,638	2,442	1,087	874	218	6,259
26.2	39.0	17.4	14.0	3.5	100

65세 이상 인구 수 대비 학대피해노인 성별

(단위: 명, %)

구 분	65세 이상 인구 수	비 율	학대피해노인 수	비 율
남	3,680,518	43.3	1,549	24.7
여	4,815,559	56.7	4,710	75.3
계	8,496,077	100	6,259	100

※ 65세 이상 인구수 : 행정안전부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(2020.12 기준)

-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17개의 자치구에서 제정하였으며, 전국적으로는 9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.⁴⁾ (2021. 9. 29. 기준임)

- 최근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문제 중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동학대, 부녀자학대, 데이트폭력, 직장내갑질

4)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“노인학대”로 검색

등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결과 폭력적인 형태로 분출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.

- 이는 가해자의 정신적, 병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치유와 관리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.
- 노인학대는 예전에는 가정 내 문제로 보았으나 현재는 노인 인권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, 그런 의미에서 본 발의안은 노인 학대에 대해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으로 여겨집니다.
- 상위법령 상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,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의 활성화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경로효친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훌륭한 윤리의식 함양에 매우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